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11월 뉴스레터 vol. 37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두 마리 토끼 잡는 협동조합의 사업 원칙

채우고 비우고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장례 후기 “저부터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쓸신장 사망진단서란?

숫자로 보는 채비 장례문화 혁신 사회적경제조직 연대활동 찬성의향

조합 소식 채비강좌는 진행 중

두 마리 토끼 잡는 협동조합의 사업 원칙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과 상담 중에 "한두레는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원가로 구매해서 조합원께 모든 이익을 돌려드리고 운영비용은 최소한으로 씁니다. 저도 급여 없이 일한답니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멀뚱히 쳐다보더니 "사업가라면 돈 팍팍 쓰고 많이 벌고 해야지, 대표이사(?)의 무급 봉사가 무슨 자랑입니까?"라고 하셔서 그만 머쓱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15억으로 상조회사 의무 자본금 상향 조정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죽을 동안 살 동안 해도 몇 억 모으기 힘들었는데 모 대형 상조회사는 유명 배우를 내세워 광고를 하더군요. "의무 자본금의 X 배 충족, OO상조. 신뢰가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상조회사들 중 장사 잘 한다는 대형사 20여 개를 추려서 2018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한 회사 당 평균 선수금을 1735억 받아서 364억을 모집수당으로 지불했더군요. 회원들이 낸 적립금 중 20~30%를 영업사원 몫으로 준거죠. 여기에 광고비, 임직원 급여, 사무실 경비 쓰다 보니 손실은 더 커져 평균 215억의 누적 적자가 쌓였습니다. 자본금 15억 올려봤자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평평 쓰고 남은 선수금을 대부업에 투자한 업체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핵심가치라더니 유명 연예인 광고나 지인영업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고객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고객들 대상으로 여행상품, 안마의자, 전자제품을 판매해서 이익을 내는가 하면 인건비를 아끼려 장례지도사, 도우미는 전부 착취형 외주로 돌려서 속칭 '뒷방 (리베이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 해놓고 있습니다. 죽음을 영업 대상으로 보니 장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엔진 = 수익

우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돈 버는 데 무능하다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 이 논리에 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 벌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든 후에 사회적 목표는 그 돈을 써서 하면 된다는 이분법입니다. 아무리 내세우는 가치가 좋아도 적자가 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이런 관점이라면 협동조합이 영리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조합원 이익 극대화하자고 농협이 열대 우림을 벌채해서 파괴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쉽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례지도사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여러분에게 이익을 돌려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한두레는 19년 초 서울시 공영 장례 입찰에서 최고가로 응찰해서 아깝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장례지도사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관이나 수의에서 최소한 품위를 갖추려니 최고가를 써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가격을 낮춰 내서 입찰을 따는 게 좋았을까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경제활동 따로 가치 활동 따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조합원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협 조합원이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한다든지 한겨레두레 조합원이 의미 있는 대안으로서 작은 장례를 치러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은 사업에 관계하는 이해관계자들, 즉, 장례지도사, 도우미 등을 착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내 외부 공히 호혜와 공정에 기초하는 사회혁신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협동조합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안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다른 상품과 차별성을 가지고 “meaning-out”과 같이 최신 트렌드를 추구하는 소비자도 끌 수 있어 사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 좀 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앞서서 일견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채비장례의 전도사를 자처해야 하는지, 비록 어렵더라도 성 평등 장례, 친환경 장례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 오늘부터 가족들을 설득해서 추모가 갖든 채비장례를 준비합니다. 엉터리 상조회사에 가입한 친구들을 구출해서 한겨레두레 조합에 가입시킵시다. 공정과 정직에 기초한 호혜의 경제가 이익 경쟁으로 찌든 이 땅에서 꽃 필 수 있도록 거자씨만한 믿음을 키워봅시다.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우리 조합 알기 캠페인 4탄

“한겨레두레가 만든 추모형 장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1명을 추첨하여
참튼건강과학의 ‘숨쉬는 야채수’ 1박스를
경품을 드립니다 (기한: 2020.12.6)

*참여는 문자로 보내드린 설문 링크를 확인하세요



*전체 중 운영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채비 뉴스레터 Vol.37.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기업, 학교, 군대, 병원, 지자체 등을 다니며 1200회 이상 감사 강연을 해 왔다.

웰다잉(well-dying)은 그런 필자에게 감사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성찰과 영감을 선물해 준 테마였다. 미국의 호스피스 간호사 재닛 웨어가 22년 현장 체험에 바탕해 저술한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들>을 읽고 나서 웰다잉과 감사는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다.

오랫동안 호스피스 돌봄을 받아온 94세 환자 루이에겐 4남 1녀의 자녀가 있었다. 장남 로니, 차남 로이드, 삼남 랜스, 장녀 로런이 바로 그들이었다. 루이가 임종 상태로 치달을 때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루이는 돌연 회복해 8년 동안이나 그를 돌봐온 호스피스 팀과 가족을 놀라게 했다. 18개월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자 임종 연락이 자녀들에겐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루이가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마침내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 왔다. 루이는 아주 잠시 깨어났다. 재닛은 자녀들을 재빨리 방으로 불렀다. 루이가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장남 로니를 향해 침대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로니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루이는 로니의 손을 붙들고 5분 동안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말했다.

“고맙다.”

루이의 눈길은 재닛을 스쳤다. 루이가 장녀 로런을 가리키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저 아이를 데려와요.”

루이는 로런의 손을 잡고 얼굴을 골똘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기고 있는 듯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놓기 전에 말했다.

“고맙다.”

루이는 차남 로이드, 삼남 랜스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그 일을 모두 마치고 재닛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되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다.

그렇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맙다” 즉 감사다.

백 년을 살아본 사람이 마침내 찾아낸 인생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최고령 스타 강사와 베스트셀러 작가로 기록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1920~)의 강연을 3년 전에 들은 적이 있다. 한 세기 가까이를 살아낸 사람의 지혜를 직접 듣고 싶어서였는지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청중이 모였다.

“타인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강연 말미에 김 교수가 결론을 내리듯 했던 말이다. 그는 청중에게 이런 제안도 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 새 출발을 합시다.”

강연이 끝나고 문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3년이 흐른 뒤 선생님이 진짜 100세가 되었을 때 꼭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다시 한번 감사를 강조했다.

“더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서 ‘김 선생 고마웠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서 소개한 호스피스 간호사 재닛 웨어는 숱한 죽음을 지켜보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저 ‘살자’가 아니라 ‘더 잘 살자’고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칸트의 어법을 빌리자면, 감사 없는 웰다잉은 공허하고 웰다잉 없는 감사는 맹목적이다. 재닛도 자신의 저서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언제나 오늘을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압니다.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애롭고 즐겁게 살면서, 내게 주어지는 매일에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지환 | 감사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 객원교수

“저부터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1월 3일(화) 오후 1시, 서울시 충무로 헤센스마트상가 2층 공간채비. 은은한 불빛 아래 나지막한 목소리가 장내에 퍼져나갔습니다 ‘고 송OO 어머님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상주 이정희 님이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다. 8명의 유족이 슬픔 속에 귀를 기울였다. 작고 아름다운 이별, 기존 장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 생각을 하면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남동생은 해외에 있어서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기존의 3일장, 접객 중심의 장례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래 준비하고 결정했습니다. 가족 중 어르신에게 미리 설명하여 설득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족끼리 상의하고.. 그렇게 가족 중심의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시던 어머니가 임종하시자 이정희 님은 슬픔을 뒤로한 채 이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인을 병원 안치실에 모시고 다음날 추모식을 위해 고인의 사진과 유품을 챙겼습니다. 추모 편지를 가다듬고, 해외에 있는 남동생 가족과 손녀를 위해 영상회의 앱을 준비하였습니다.

추모식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 고인을 향한 편지 낭독, 고인의 마지막 생일 축하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해외에 있는 손녀가 제작한 존경과 감사의 영상 상영, 간소한 제례의식, 종교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주와 가족은 의연하게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내내 어머님과 이별을 받아들이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만일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존의 상례와 손님맞이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충분히 추억하고 애도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고, 어머니를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이정희 님이 작은장례를 실천한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기존의 장례를 대신할 새로운 장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작은 장례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채비장례, 이제 혁신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란?

사망진단서란 의학적으로 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병원 외부에서 운명한 경우)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사체검안서라고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이후 각종 행정처리에도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최초 발급 시 10부 정도 받아오면 됩니다.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인적 사항, 사망의 원인, 사망의 종류, 사망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는 수정하거나 재발행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 발급받을 때 주요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망의 종류입니다.

고인의 인적 사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돼야 하는데, 간혹 유족이 생각하고 있는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차이가 있어 오발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인을 마친 후 화장장에 와서는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랴부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급받을 때 등본을 확인하고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입니다. 병사는 병리적 요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 외인사는 병리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교통사고, 자살 등)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기타 및 불상은 사체검안으로는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다는 의미인데, 자택에서 운명한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체검안서를 받을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의 종류가 병사일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검시관의 시신 검안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장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사인 줄 알고 연습 후 입관까지 다 마쳤다가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인 경우 시신을 관에서 다시 꺼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 외 사망 장소 및 시각, 사망진단서 발행기관 등도 확인해야 하지만 특히 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망의 종류를 꼭 확인해 장례 및 사후 행정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망진단서 용도]

1. 사망신고 시
2. 매장, 화장용
3. 국민건강보험공단(상한제 사후환급금 청구용)
4. 그 외 보험회사, 직장, 학교, 기타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내 어머니 간병일기

18. 어머니가 김치를 담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스스로 미음 한 수저도 떠드시지 못하던 어머니가 어제저녁에는 물김치를 담으셨다. 시장까지 아들과 함께 나가서 무와 배추, 쪽파 등의 야채를 고르시고, 집에 들어다 드리니 야채를 손수 다듬고 깨끗이 씻어 직접 칼로 자르기까지 하셨다. 어머니는 자른 무와 배추를 20분 남짓 소금에 저려두고 기다렸다. 무 배추가 숨이 죽자 거기에 배 하나를 깍둑 썰어 넣고 쪽파와 다진 마늘을 넣은 뒤 생수를 부어 물김치를 담으셨다.

“국물지 담글 때는 무나 배추는 너무 오래 절이면 안 돼. 썰어서 금방 담가야 아삭아삭해. 오래 절이면 맛없어.”

“근데 왜 풀은 안 넣으세요.”

“국물지는 풀국 안 넣어야 시원해. 열무물김치는 보리밥 갈아 넣으면 맛있고 배추 백김치는 찹쌀 풀을 넣어야 하고.”

“아, 물김치도 다 다르네요.”

병원에 계실 때부터 집에 가면 아들에게 물김치 한 통 담아주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기어코 물김치를 담으신 거다. 그런데 너무 느닷없어서 납득이 쉽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다. 낮에는 마당에 나가 30분간 별을 쬔면서 걷기 운동도 하셨다. 저녁 미음도 직접 수저로 떠드시기까지 했다. 그런데 전혀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왜 갑자기 기력이 생긴 것일까. 변수라고는 옥타미노스4500 밖에 달리 없다. 그것도 그제, 한포 어제 한포 딱 두포 밖에 안 드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저 링거를 과립으로 만든 건강 보조 식품일 뿐인데 말이다.

포당 가격으로 따지면 3천 원도 못된다. 그거 6천 원어치 드시고 저리 달라질 수 있다니 납득이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그간 드시게 했던 다양한 잡곡 미음과 생기탕, 부르스쥬스, 콩킹, 흑염소 진액, 단백질 음료, 헤모힘 등으로 길러진 면역에 옥타미노스가 더해지며 임계점에 다다라 효과가 증폭됐을 수도 있다. 옥타미노스는 단 2포(9g)로 아미노산링거 100mL의 함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한다. 신체의 에너지원인 주요 아미노산 10종과 비타민, 옥타코사놀 등을 한 입에 털어먹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니 먹는 링거인 셈이다.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옥타미노스4500 단 두 포 먹는 것으로 톡톡히 효과를 얻고 있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아무튼 약도 음식도 사람마다 제 것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게다가 효과가 언제까지 같지 알 수도 없다. 그래도 우선은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다. 어머니께서 직접 담가주신 물김치를 다시 먹어보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또 한 번 일상의 기적을 맛보고 있다. (5.14)

21. 어머니가 차려 주신 밥상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다시 받게 될 줄이야. 너무 행복한 아침이다. "조금 좋아지면 열무김치 담가 줄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니 어머니가 기어코 열무김치를 담그셨다. 여름에는 열무김치가 최고 아닌가. 재료 준비하는 것은 아들 손을 빌리셨지만 김치는 어머니가 담그셨다. 열무와 얼갈이배추 약간에 양파 하나는 갈아 넣고 하나는 잘라 넣고, 다진 마늘을 넣고 간은 막내 이모가 보내주어 보관하고 있던 멸치 액젓으로 했다. 보리밥이 없어서 밀가루 풀을 묽게 쑤어서 넣었다. 그런데도 열무가 익으니 너무 너무 맛있다. 어머니가 여름이면 늘 담가 주시던 바로 그 열무김치 맛이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어머니는 열무가 좋았고 액젓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자극적인 양념이 없으니 스승 하지만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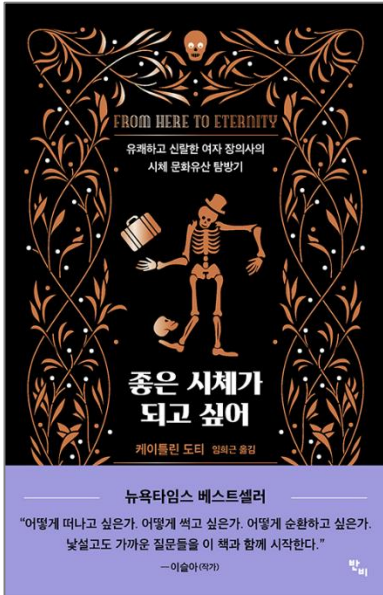
거기에 얼마 전 어머니가 담그셨던 물김치까지 폭 익어서 시원하기 그지없다. 물김치는 아주 단순한 재료로 만들었다. 무와 배, 양파, 쪽파, 마늘이 전부다. 미원 설탕은 한 톨도 안 들어 갔다. 배가 달았던지 느끼하지 않은 단맛의 잘 삭은 국물이 속을 뽕 뚫어준다. 또 현미와 콩을 넣고 지은 밥. 어머니 솜씨가 베어든 단출 하지만 천연의 음식들. 더없이 맛있고 충만한 밥상이다. 게다가 미음일지언정 이제는 떠먹여 드리지 않아도 어머니가 손수 드시니 함께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먹게 된 것은 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살아만 계셔도 좋고 고마울 것을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밥상에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게 되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함께 먹는 밥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새삼 느끼는 아침이다.

8개월 만에 구강암 말기, 사지에서 돌아오신 어머니. 삶이란 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중증 암 환자는 수술이 잘되고 항암치료도 잘 받아 회복되는가 싶다가도 재발도 많다. 그러니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란 사실을 잘 안다. 진짜 앞으로 또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무튼 징그러운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의 문턱에서 소생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다. 그것이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래서 직접 담가 주신 김치에 함께 먹는 밥상 한 끼 한 끼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평온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세상도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상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일상의 지속이 아닌가.

(6.6)

강제운 | 시인

* 뉴스레터 채비는 강제운 시인의 허락을 받아 그의 '간병일기'를 편집해 4회(35~38호)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문은 <https://url.kr/SWxB9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

케이틀린 도티 | 반비

삶의 방식은 모두 다른데, 죽음의 방식은 왜 같아야 할까? 종교가 있든 없든, 고인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졌든 간에 한국의 장례식은 하나같이 비슷한 모양새다. 3일 동안 남성은 상주가 되어 양복을 입고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이하며, 여성은 한복을 입고 홀을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접대한다. 과연 지금의 장례 문화가 최선일까? 매장이나 화장 외에 시신을 처리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에게 시체는, 죽음은 어떤 의미인 걸까?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는 죽음을 둘러싼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 케이틀린 도티는 20대에 화장터에 취직해 여성 장의사로 일한 경험을 담은 전작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에 담았다. 상업화, 기업화된 장례 문화와 죽음에 대

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관행이 고인을 추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좋은 시체가 되고 싶어』는 좋은 죽음을 위한 구체적인 참조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세계 곳곳의 죽음 의례 현장으로 떠난다. 인도네시아의 마네네 의식, 볼리비아의 냐티타, 멕시코의 망자의 날 축제, 일본의 고쓰아게, 미국의 야외 화장과 자연장까지 그가 직접 목격한 지구촌 곳곳의 죽음 의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알라딘 책소개 발췌)

시간이 멈춘 방

고지마 미유 | 더숲

이 책은 고독사 현장·쓰레기 집·자살 현장 등을 담은 여덟 점의 미니 어처와 함께, 미니어처에 그려내지 못한 남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한다. 비보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아버지의 부고를 접한 딸이 30년 만에 아버지의 방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사고 물건’이 되어버린 집을 두고 유족에게 고액의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집주인도 등장한다. 한창 작업 중인 현장에 급습해 유품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주변인 이야기도 전한다. 한편 유품 정리만 의뢰받고 욕실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장을 찾아갔을 때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 의뢰인인 아들이 사후 일주일가량 지난 고인의 흔적을 직접 치워낸 것이다. “오직 어머니만이 저를 이해해 주셨지요.” 라는 의뢰인의 말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누군가의 삶이 갑작스레 멈춘 자리, 고독사 현장은 미니 어처를 통해 독자의 눈앞에 생생하게 재구성된다. 사람 모양으로 혈흔과 체액이 묻쳐진 이불을 통해 지병을 앓던 고인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출구 방향으로 쓰러진 망자의 흔적을 보면, 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리다. 이 책은 미니어처로 고독사 문제를 환기하면서, 죽음의 현장을 둘러싸고 작가가 마주했던 이야기들을 담담한 필체로 전한다. 고인의 마지막 흔적부터 남겨진 자들의 여러 모습까지, 시간이 멈춘 방을 삶의 한복판으로 다시 불러낸다. (알라딘 책소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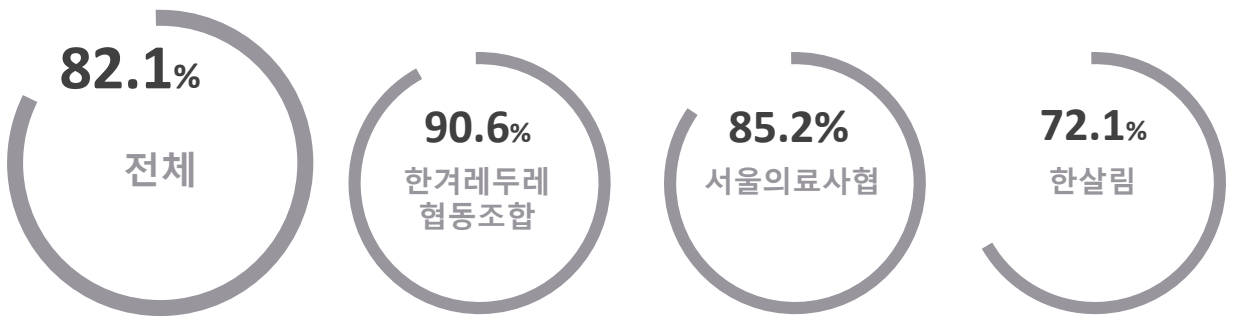
1

소속조합의 장례문화 혁신 동참 찬성율

‘장례문화 혁신 연대활동 찬성한다’ 82.1%

-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연대하여 장례문화 혁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소속조합의 동참에 대 82.1%(매우 찬성+찬성하는 편)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응답자 찬성율은 90.6%로 응답자 그룹 중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소속조합의 장례문화 혁신 연대활동 찬성율 (n=659)



*자료출처: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외 6개 협동조합 공동 조사. 전국 19세 이상 남녀 659명.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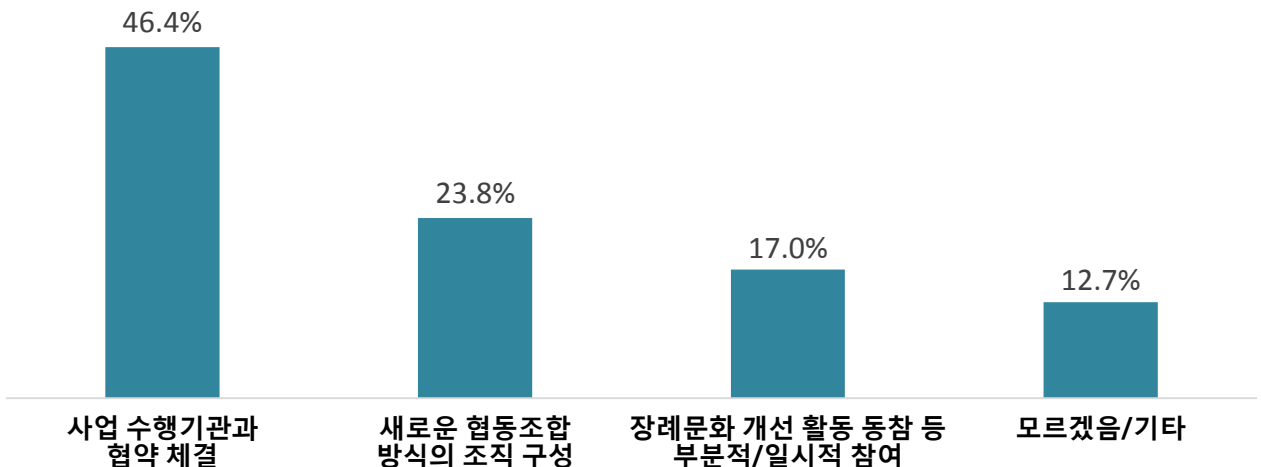
2

소속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수준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이 가장 적합하다’ 46.4%

- 속한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사업 수준은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체결’이 46.4%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구성, 장례문화 개선활동에 부분적/일시적 참여’ 순으로 응답됨.

[그림] 장례혁신 연대사업 수준 (n=659)



*자료출처: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외 6개 협동조합 공동 조사. 전국 19세 이상 남녀 659명. 2020)

[채비학교 x 공간채비] 채비 강좌는 진행 중



1강, 협동조합과 장례



2강, 감사를 통해 죽음을 바라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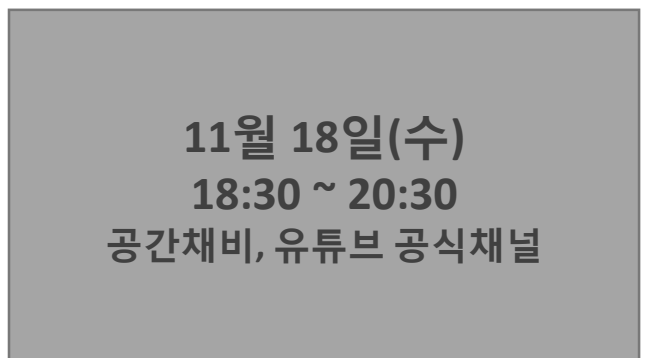
3강, 실전 장례준비의 모든 것



4강, 나를 알아가는 심리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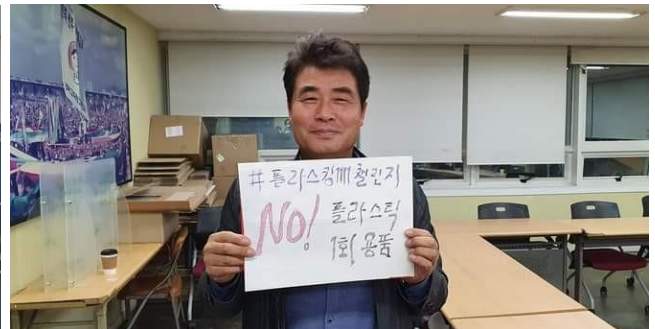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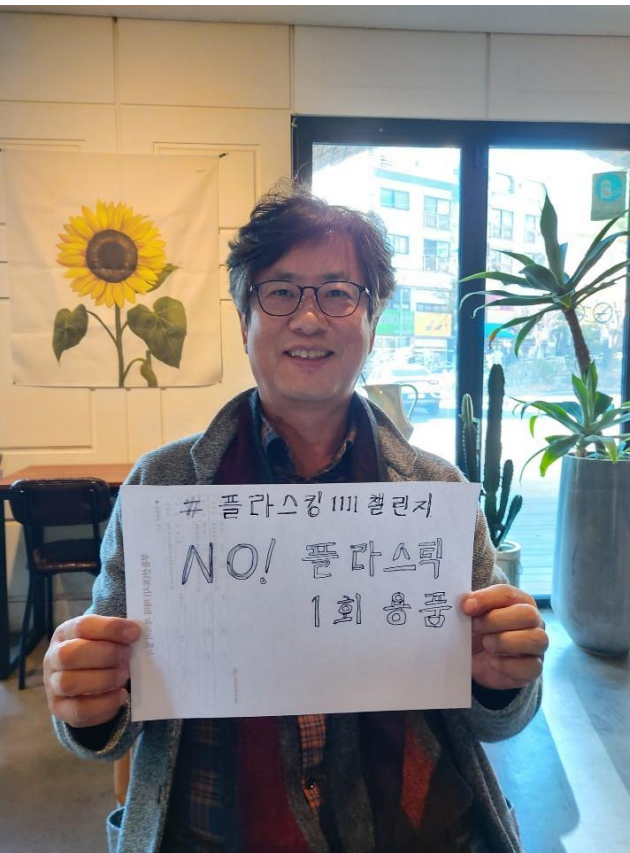
5강, 내 몸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2



6강, 재산 정리, 상속, 증여, 세무의 모든 것

2020, 하반기 채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11/18. 저녁에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접속 바랍니다

[충남조합] 1회 용품 줄이기 도민참여 캠페인 ‘플라스킹 1111’



플라스킹 1111의 의미는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버스킹의 줄인 말입니다.

또한 1111은, 1일 1가지 1회용품 줄이기 1천명 도민참여를 의미합니다.

충남한두레협동조합이 업무협력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 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 ‘도내 버스킹 (공연)’, ‘도민 1천명 참여 인증샷’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은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김구현 상임이사께서 3회 라이브 방송 스텝으로 참여하고 조합원들은 릴레이 인증샷으로 참여 중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캠페인 영상 다시 보기 <https://youtu.be/-JJhzWH3LAQ>

[강원조합] 8차 정기총회



지난 10월 28일 강원조합의 8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짧게나마 조합원들과 한해살이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강원조합 조합원들의 따뜻한 소식,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10월

정은주 조합원 부친상
황현실 조합원 부친상
권필숙 조합원 시부상
이용주 조합원 지인상
류형수 조합원 모친상
권구홍 조합원 부친상

정영옥 조합원 빙부상
한승진 조합원 빙부상
정태기 한겨레신문사장
박문식 조합원 동서상
최주일 조합원 모친상
배우익 조합원 부친상

허성범 조합원 조부상
김민숙 조합원 부친상
이용봉 조합원 모친상
이명재 조합원 지인상
박정숙 선생 민족통일장

9월

배우익 조합원 부친상
장수련 조합원 부친상
이재경 조합원 부친상
이주연 조합원 시부상
윤석위 조합원 사촌상

송민제 조합원 부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이상덕 조합원 모친상
최영선 조합원 모친상

황덕주 조합원 부친상
장혜경 조합원 시부상
김인철 조합원 배우자상
백찬홍 조합원 모친상

8월

이혜숙 조합원 시부상
박종훈 조합원 빙모상
이광표 조합원 모친상
황윤길 조합원 모친상

노경훈 조합원 부친상
김광호 조합원 부친상
유기창 조합원 빙모상
윤석위 조합원 사촌상

신임숙 조합원 시모상
이윤기 조합원 자녀상
이계령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제 31호 | [24%의 기적]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채우고 비우고] 우리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말할 수 있을까
[장례 후기] 두 번의 장례식을 한겨레두레와 함께 했습니다

다운로드

제 32호 | [24%의 기적] 이사의 추억
[채우고 비우고] 기억과 사진
[장례 후기] 효도하는 법

다운로드

제 33호 | [24%의 기적] 어느 49재
[채우고 비우고] 나의 임종은 어떤 모습일까
[장례 후기]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장례 서비스

다운로드

제 34호 | [24%의 기적] 여러분은 조합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채우고 비우고] 눈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장례 후기] 벼랑 끝에서 만난 한겨레두레

다운로드

제 35호 | [24%의 기적] 이 좋은 거 널리 알리자
[채우고 비우고] 내 슬픔에 절을 하고
[장례 후기] 한겨레두레와의 뜻 깊은 인연

다운로드

제 36호 | [24%의 기적] 협동조합도 기쁨을 놓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채우고 비우고] 애도에 관하여
[장례 후기] 친구의 새로운 여행길이 가뱍기를

다운로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